



트럼프발 관세 전쟁...글로벌 무역 전쟁

유럽 '즉각 대응' 거론...다국적 기업들 투자 보류 '예의주시' 중국, 10% 관세에 '대미 보복 관세'...미국 '관세 폭탄' 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카드'를 추가로 꺼내들면서 긴밀한 교역 관계로 얽힌 전세계 경제주체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는 유럽의 정상들 사이에서도 '즉각 대응'이 거론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의 전운이 짙어지는 형국이다.

이에 다국적 기업들은 증폭되는 불확실성 속에 투자를 보류하고 앞으로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9일 발표했다.

또 11~12일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한 관세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관세를 매기는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 4일 부과하기 시작한 대중(對中) 추가 10% 관세에 대해 중국 측이 베이징 시간으로 이날 0시(미 동부시간 9일 오전 11시)를 기해 '대미 보복 관세'에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관세 폭탄' 투하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캐나다·멕시코·중국을 보편 관세로 압박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상호 관세,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화하며 글로벌 무역 전쟁에 기름을 부었다.

유럽 정상들의 발언은 점차 단호해지고 있다.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는 이날 차기 총선 토론회에서 미국의 관세에 맞서 '고통을 줄 대응 방안'(list of cruelties)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 외교적인 표현으로 설명하자면, 유럽연합(EU)은 1시간 내에 대응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CNN과 인터뷰에서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의 물가가 오르게 된다. 그것을 원하느냐"며 유럽과 미국의 경제 모두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EU가 "우리 자신을 위해"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무역 비중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날 한국 증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25% 부과 방침에 철강 업종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수입 물량의 15%를 차지하는 유럽 경제계의 걱정도 크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에 거점을 둔 다국적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 최대 에너지 기업 중 하나인 독일 RWE의 마르쿠스 크레버 최고경영자는 최근 한 콘퍼런스에서 미국의 관세 위협으로 인해 미국에서의 풍력·태양광 발전 관련 투자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배터리 등 미국에서 생산되는 중간재들은 수입이 불가피한데, 어떤 품목을 들여올 수 있을지 불확

실성이 커져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크레버 CEO는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서둘러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받아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보고서에서 "문제는 관세 자체가 아니라 불확실성"이라며 "불확실성이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덴마크 물류업체 노르덴의 안 린드보 CEO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EU가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을 경우 이중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수익률 악화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며 플랜B를 숙고하는 모습이다.

런던에 본사를 둔 주류 회사 디아지오는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에 2억 달러(약 2000억원)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프랑스 주류업체 페르노리카도 관세로 인한 타격을 예측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 볼보 역시 일찌감치 관세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한 올해 수익률 악화 가능성을 경고해 둔 상태다.

세계 최대 명품업체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와 거대 석유회사 셸 등도 미국 내 생산량 증대를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 토발에너지 패트릭 푸안네 CEO는 "중국 측에서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호주나 카타르산 액화천연가스(LNG) 공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우리는 미국산 LNG를 아마도 유럽 등 다른 곳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일방통행...민주당 '셋다운' 승부수 "연방정부 개편" 수정 안하면 예산안 처리 협조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도저식 연방정부 개편에 무력한 모습을 보여준 민주당이 정부를 '셋다운'으로 몰고 가는 벼랑 끝 전술로 대항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오는 3월 14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예산이 없어 일부 정부 기능이 중단되는 '셋다운' 사태를 맞게 되는데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의 코리 부커 상원의원(뉴저지)은 9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 위기에 처했으며 민주당은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인 앤디 김 상원의원(뉴저지)도 NBC 인터뷰에서 정부 셋다운 가능성에 대해 "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을 원하는 마지막 사람"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행정 위기 직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발언을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이 연방정부에 대한 모든 지렛대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에 공화당을 견제할 수단이 제한적인 현실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모든 정부 보조금과 대출 집행을 동결하고, 국제개발처(USAID)를 폐기 하려고 하는 등 의회가 입법을 통해 정한 정책과 예

산까지 무시하는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하자 민주당도 셋다운이라는 절박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앞서 상원 세출위원회 부위원장인 패티 머리 상원의원(민주·워싱턴)도 의회가 이전 예산 회기 때 승인해 정부 기관들에 배정한 예산을 백악관이 삭감하는 상황에서 공화당과 협상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NBC뉴스에 밝혔다.

현재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예산안의 자력 처리가 가능하지만,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분열 양상이라 민주당의 셋다운 카드에 취약할 수도 있다.

하원의 경우 의석 차이가 근소해 공화당 하원의원 3명만 이탈해도 자력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다.

그런데 전임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2년 동안 하원 공화당의 강경파들은 정부 지출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지도부를 따르지 않고 예산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 때문에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정부 셋다운을 막으려면 공화당 강경파를 설득하거나, 민주당과 협력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특정 정부 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예산안 처리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화당의 마이크 존스 하원의장은 이날 예산안을 초당적으로 처리하는 데 관심이 없음을 시사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연합뉴스

7년간 중단된 체코 댐 건설, 비버 8마리가 완성했다

독 만들어 생태 복원 기여 17억9000만원 절약 효과

체코가 7년간 추진해놓지 못했던 건설 계획이 비버 8마리의 도움으로 완성됐다.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7년 전 프라하 남서쪽 60km에 위치한 브리디 지역에 댐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이 지역은 원래 습지였지만, 도랑을 만들어 배

수한 뒤 군 기지를 건설했다. 체코 정부는 이 지역을 예전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해 댐 건설을 추진했지만, 토지 소유권과 건축 허가 등의 난관에 부딪쳐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지역에 서식하는 비버 8마리가 댐을 건설하려던 곳과 거의 동일한 위치에 독을 만들었다.

독 주변에는 이미 작은 연못이 생겼고, 주변에 습지도 늘어나고 있다.

댐 건설 계획을 주관한 체코 정부 기구 관계자는 "비버는 독을 만드는 장소를 항상 완벽하게

선택한다"며 "설계도도 없이 무료로 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체코 정부는 비버가 대신 독을 만들어 준 덕분에 3천만 체코 코로나(약 17억 9000만원)를 절약했다고 밝혔다.

브리디 지역에서 비버가 만든 독을 점검한 생태학자들은 독의 내구성이 뛰어나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돌개와 개구리 등 습지에 서식하는 다른 생물에도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버는 추가로 독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폐품 더미서 찾은 '보물 책' 3800만원에 낙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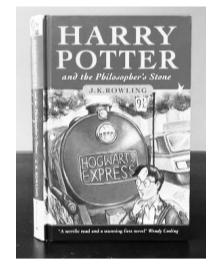
해리포터 시리즈 1편 초판본

폐품 더미에서 찾은 해리포터 시리즈 1편 초판본(사진)이 경매에서 3800만원에 팔렸다고 영국 BBC 방송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해리포터 1편 '해리포터와 현자의 돌'(Harry Potter and the Philosopher's Stone) 하드커버 초판본이 전날 페인턴에서 열린 'NLB 옥션스' 경매에서 2만 1000파운드(약 3800만원)가 넘는 낙찰가를 기록했다.

해리포터 1편의 제목은 '해리포터와 현자의 돌'이나 미국에서 출간될 때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로 바뀌었다.

'해리포터와 현자의 돌' 초판본은 1997년 출간된 것으로, 당시 하드커버로는 500권만 발행됐다.



경매장을 운영하는 다니얼 피어스는 영국 브리삼 지역에서 최근 별세한 남성의 소장품 가운데서 이 책을 찾았 다면서 발견 당시 이 책은 버려질 폐품 더미에 있었다고 말했다.

피어스는 이번에 경매된 책은 초판본 500부 중 도서관에 배포된 300부 중 한 권이라면서 초판 하드커버 낙찰가치고는 정말 좋은 가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책의 뒷면에 인쇄된 '철학자'란 단어의 철자가 잘못 적힌 것이 초판본의 특징 중 하나라면서 이를 통해 이 책이 초판본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